



연성대학교신문

제 180 호

2026년 07월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031)441-1100, (031)441-1461 Fax (070)4275-0581 발행인 권민희 주간 김완기 편집장 배은서 디자인 스튜디오 센

Contents

- 1-1 RISE사업 1차년도 성공적 마무리 지역혁신 인재양성 기반 구축
- 1-2 연성대학교, '경기도 생활기술 평생배움대학' 4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및 3년 연속 표창
- 1-3 연성대학교,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교육경영부문 7년 연속 수상 및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
- 2-1 네이버 웹툰 '열사병' 전격 연재... 연성대 웹툰만화콘텐츠와 상서현 작가

- 2-2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2026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대비 '출정식' 개최
- 2-3 연성대 작업치료과 전공동아리 '테라피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 3-1 연성대학교 경영학과, 베트남 유학생 기업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및 실무역량 강화
- 3-2 연성대학교 카페베이커리과, 국제요리 & 제과경연대회 전원 금상 및 국회의원상 수상 디저트 라이브공연 부문 참가팀 전원

- 수상 쾌거
- 3-3 연성대학교 반려동물산업과, 한국애견협회 어질리티 대회 학생부 최다 수상 쾌거
- 3-4 연성대학교 축구부, 한양대 원정서 2-0 승리
- 4 제50회 양지체전, 빛나는 너의 열정을 보여줘!
- 5-1 전과자가 다녀간 연성대 000과?!
- 5-2 연성대 학식을 소개합니다!
- 6 안양1번가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안양1번가 상가 변영회 대표를 만나다

- 7-1 학보사 국원이 다녀온 일본 여학연수 후기
- 7-2 학보사 국원이 다녀온 필리핀 여학연수 후기
- 8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서정안 교수님을 만나다
- 9 연성대학교의 신설학과, 간호학과 정수진 교수님을 만나다
- 10 미래의 간호사, 이하림 학생
- 11 국원들의 추천곡을 소개합니다.
- 12 잠시 쉬어가는 시간! 당신은 진정한 연성인인가요?

RISE사업 1차년도 성공적 마무리 지역혁신 인재양성 기반 구축



연성대학교는 2025년부터 5년간 교육부 및 경기도로부터 유치하여 운영 중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지원 사업의 1차년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사업 운영 전반과 정량·정성 성과를 종합 점검하였으며,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2차년도 사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2월 25일에는 RISE위원회를 열어 자체평가 결과를 포함한 1차년도 사업 운영 성과, 예산 변경 내역, 3~4월 추진 예정인 차년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는 디지털·ICT, 뷰티·패션·디자인, 소셜·전문서비스 등 3개 분야 총 15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사업비 14억 원 중 90% 이상을 집행하여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주문식 교육과정 12개 과정(300명 이상 이수), 캡스톤디자인(약 1,300명 이수), 표준현장실습학기제(180명 이상 이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 기반 산업군에 특화된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특히 주문식 교육 및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경기도 가중치 반영)은 현재 기준 50% 이상으로 조사되어, 사업 첫해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 전체 기준 230건 중 110건 이상의 애로기술지도 및 산업자문을 수행하였고, 산학공동기술개발 1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재직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대학의 시설 및 기자재를 개방·활용하는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헌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경기북부 섬유산업 지원, 안양1번가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C-BI 제작 지원, 지역현안 발굴·해결 지원 플랫폼(G-SOLVER) 운영, 늘봄 교사 양성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RISE사업은 저출산 심화와 시로 촉발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교육부·경기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연성대학교는 2차년도 사업에서도 지역과 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 '경기도 생활기술 평생배움대학' 4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및 3년 연속 표창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6년 경기도 생활기술 평생배움대학'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4년 연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 우수기관 표창, 2024년 감사장, 2025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경기도로부터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존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에서 개편된 '경기도 생활기술 평생배움대학'을 통해 더욱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참여 대상을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적 수요와 도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실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생활밀착 집수리 기술자 양성과정 ▲AI 활용 스마트 콘텐츠 제작자 양성 과정 ▲호텔 뷰티 모델 실무자 양성 과정입니다. 권민희 총장은 "3년 연속 표창을 통해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뜻깊습니다"라며 "4년째 이어지는 경기도 사업을 통해 성인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031-441-1090, 10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교육경영부문 7년 연속 수상 및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

우리 대학은 4월 23일(목)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교육경영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부문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은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후원하는 시상식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성대는 교육경영부문에서 차별화된 혁신 전략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률을 기록하며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함께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산학 동반성장'의 선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 선정을 비롯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 교육부의 핵심 사업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고등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최초로 선정된 '마이스터대학(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평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민희 총장은 "7년 연속 대상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은 학생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혁신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계 없는 개방형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열사병' 전격 연재... 연성대 웹툰만화콘텐츠과 상서현 작가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웹툰만화콘텐츠과 출신 안서현 작가(필명 상서현)가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에서 신작 <열사병>의 정식 연재를 시작하며 데뷔했습니다.



<열사병>은 지난 4월 15일 첫 공개된 작품으로, 한여름의 고시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장르의 웹툰입니다. 작품은 세상을 등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광태'와 세상에 존재하고자 하는 소녀 '보애'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히 '보애'라는 인물을 통해 멈춰 있던 광태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연재 초기부터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서현 작가는 "2025 네이버웹툰 고등최강자전 본선을 통해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과를 알게 되었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실기 준비를 거쳐 연성대학교 디지털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인 김정영 교수는 "네이버웹툰 연재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꿈의 무대와 같은 곳으로, 재학 중 데뷔는 매우 뛰어난 성과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상서현 작가는 "체계적인 교육환경과 교수진의 지도 아래 기본기와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열사병>은 매주 목요일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시리즈를 통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작화와 긴장감 있는 전개로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K-웹툰을 이끌어갈 차세대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2026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대비 '출정식' 개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보건의료행정과는 2026년 4월 29일 교내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앞둔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대비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준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과 교수진과 졸업 예정 학생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학과장인 서정안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안내가 제공됐습니다. 특히 역대 시험 출제 경향과 합격률 추이, 최근 시험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수험 전략이 제시됐으며, 응시 일정과 시험 시간, 준비물, 예상 시험 장소 등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 경영 효율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건의료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자격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합격을 제고를 위한 학과 차원의 지원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 운영과 과목별 집중 특강, 맞춤형 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5월부터는 자율학습이 가능한 '국시 준비실'을 별도로 운영해 학습 몰입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정안 교수는 "국가시험은 전문 직업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학생들이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학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국가시험 합격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국가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연성대학교는 자산학 협력 기반의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혁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성대 작업치료과 전공동아리 '테라피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연성대학교 작업치료과 전공동아리 '테라피움'은 2026년 5월 4일 학생복지센터 팝업 홀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42초 동안 장애인이 되어본다면?」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학생들이 장애 상황을 경험하며 일상생활 속 불편함과 환경적 제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교내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로 운영됐습니다. 이날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캠페인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 지정된 구간을 이동하는 보행 장애 체험, 한 손만 사용해 단추 채우기와 지퍼 올리기를 수행하는 상지 장애 체험, 헤드셋을 통해 감각 과부하 상황을 경험하는 자폐 스펙트럼 체험,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건 찾기와 이동을 수행하는 시각 장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체험 후 "평소 쉽게 하던 행동도 신체적 제한이 생기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배려 부족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도움을 줄 때도 먼저 필요한 도움을 묻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성대학교 작업치료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일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공동아리 학생들에게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실천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곽호성 작업치료과 학과장은 "장애인식개선은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와 교내 구성원과 공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연성대학교 경영학과, 베트남 유학생 기업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및 실무역량 강화

연성대학교 경영학과는 지난 5월 14일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경영 감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경영학과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 체험과 국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 학기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견학은 지난 학기(2025학년도 2학기)에 진행한 '아모레퍼시픽 사옥 견학'에 이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기업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용산 아이파크몰 견학을 통해 한국 유통 비즈니스 구조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배우고, K-컬처 소비 메커니즘을 직접 경험하며 경영학적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험형 소비 공간인 용산 아이파크몰 체험관 '도파민 스테이션'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브랜드만을 선별해 입점시키는 '테스트 앤 런(Test & Learn)'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한국 유통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했습니다.

지난 학기 아모레퍼시픽 사옥 탐방을 통해 글로벌 K-뷰티 산업 구조와 타깃 고객별 브랜드 체험 요소를 학습한 데 이어, 이번 견학에서는 유통과 공간 마케팅 분야로까지 확장된 실무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 팜 쩌안 켄(Pham Trang Nhutrang) 학생은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승민 연성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은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 산업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라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성대학교 반려동물산업과, 한국애견협회 어질리티 대회 학생부 최다 수상 쾌거

연성대학교 반려동물산업과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한국애견협회(KKC) 어질리티 대회에서 전국 학생부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반려동물 전문 인재 양성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성대학교 반려동물산업과 학생들은 비기너(Beginner) 및 노비스(Novice) 종목에 출전해 1위 6개, 2위 4개, 3위 4개를 수상하며 총 14개의 입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참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과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려견 핸들링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으며,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은 반려견과의 교감 능력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현장 대응 능력을 함께 키우며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능력과 뛰어난 수행 능력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조준혁 반려동물산업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중심 교육과 대회 참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성대학교 반려동물산업과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실습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취업 및 진로 개척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카페베이커리과, 국제요리 & 제과경연대회 전원 금상 및 국회의원상 수상 디저트 라이브경연 부문 참가팀 전원 수상 쾌거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카페베이커리과 학생들이 '2026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디저트 라이브경연 부문에서 참가팀 전원이 금상 및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5일 개최됐으며, 국내외 조리제과 분야 선수와 학생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 경연대회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요리, 제과, 디저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연성대학교 카페베이커리과에서는 총 15명의 학생이 디저트 라이브경연 부문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팀은 ▲담화팀(윤지성·이창훈·조은빈·김하진·권수정) ▲아틀리에포엠팀(허유진·김하연·김미나·이현정·류주하) ▲플로르팀(임지현·이진서·김민서·김시아·조아은)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디저트를 직접 제작하고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 위생관리, 팀워크 등을 종합 평가받는 라이브경연 방식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세 팀 모두 높은 완성도와 창의적인 메뉴 구성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전원 금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성과 현장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성대학교 카페베이커리과 안혜령 학과장은 "학생들이 평소 수업과 실습을 통해 갈고닦은 실무 역량을 국제 규모 대회에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다양한 대외 경연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성대학교 카페베이커리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전공 및 국제 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창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축구부, 한양대 원정서 2-0 승리

연성대학교 축구부가 2026 대학축구 U리그 3권역 경기에서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값진 원정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기 감독이 이끄는 연성대학교는 지난 5월 22일 한양대학교 ERICA 대운동장에서 열린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원정 경기의 부담과 경기막판 퇴장 변수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전반전 연성대학교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장 이준범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적극적인 소통

과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였으며, 골키퍼 김서진은 침착한 경기 운영과 집중력 있는 선방으로 팀의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고민기 감독과 안권현 코치, 김지철 GK코치가 선수들에게 냉정한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강조하며 후반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대 압박 타이밍과 공간 활용에 대한 세밀한 전술 수정이 더해지며 후반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후반 54분에는 김주형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연성대학교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연성대학교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상대의 반격을 차분히 제어했습니다. 이순호, 진건이, 이서후, 우민성, 황준영은 높은 활동량과 헌신적인 플레이를 통해 팀 조직력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성대학교는 후반 추가시간 90+6분 상대 자책골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에 쐈기를 박았습니다. 이후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독려하며 무실점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고민기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해준 부분이 가장 고맙다"며 "주중 훈련부터 경기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다가오는 장안대학교와의 경기 역시 철저히 준비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자신감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연성대학교 축구부는 앞으로 이어질 U리그 3권역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50회

양지체전

빛나는 너의 열정을 보여줘!



연성대학교는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교내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양지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빛나는 너의 열정을 보여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학생들이 학과를 대표해 경기에 참가하고 서로 응원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양지체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육 경기와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풋살, 피구 등의 구기 종목과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계주가 운영됐으며, 각 학과에서는 대표 선수를 선발해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의 이름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열띤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피구 3·4위전과 결승전, 농구와 풋살 결승전, 줄다리기 및 단체 줄넘기 결승전, 축구 결승전, 계주 결승전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람하던 학생들 역시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경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경기 외에도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성대학교 응원단 '리베라'는 역동적인 응원 공연을 선보이며 경기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축하공연이 진행돼 체육대회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연과 응원을 통해 체육재회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국방군사학과 학생들의 공연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절도 있고 힘찬 모습으로 진행된 행진은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댄스 동아리 '씨엘',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 경찰경호보안과 학생들의 공연과 미션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선수뿐 아니라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양지체전은 승패를 떠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학과별 응원과 경기 참여를 통해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으며, 연성대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양지체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고 응원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양지체전은 학생들의 열정과 협동심이 돋보인 행사로 마무리됐으며, 연성대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학 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과자가 다녀간 연성대 OOO과?!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유튜브 콘텐츠 「전과자」를 알고 계신가요?

2026년 6월 4일 방송에서는 EXO의 카이와 tripleS의 김유연이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를 방문하여 학과 체험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학과를 직접 경험하며 대학 생활을 소개하는 「전과자」를 통해 연성대학교 치기공과의 교육 환경과 실습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의 결손 부위를 회복하기 위한 치과보철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 수리 및 가공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력과 글로벌 감각, 그리고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춘 전문 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는 2024년에 신설된 학과로,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장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치과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Dental CAD(Computer Aided Design)를 활용하여 치과기공물을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밀링머신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선도하는 전문 치과기공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치기공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00여 개의 치과기공소와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과재료 및 치과기기 제조업체, 치과재료 유통업체, 보건의로 연구기관 등 관련 산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취득 가능한 대표 자격증으로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이 있으며, 연성대학교 치기공과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인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과자」 방송을 통해 연성대학교 치기공과의 첨단 교육 환경과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성대학교의 다양한 학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각 학과의 매력과 경쟁력이 더욱 주목받기를 기대합니다.



연성대 학식을 소개합니다! 학보사 국원이 직접 먹어본 연성대 학식 3종 리뷰

안녕하세요 연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연성대의 자랑이자 많은 학생들이 찾는 학식당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성대 학식당은 다양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매주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이번에 학보사 국원들이 직접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저렴하고 맛있는 학식 메뉴들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절초풍목살비빔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메뉴인 '기절초풍목살비빔면'을 먹어보았습니다. 여름을 맞아 계절 메뉴로 냉모밀과 함께 추가된 메뉴인데요. 칼국수면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비벼 먹는 비빔면으로, 목살과 계란, 깻잎, 김이 토핑으로 올라가 있어 풍성한 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메뉴로, 더운 날씨에 특히 잘 어울리는 한 끼였습니다.



세종대왕돈까스

학식당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인기 메뉴, 바로 '세종대왕돈까스'입니다. 식판에는 큼직한 돈까스와 밥, 샐러드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메뉴 이름처럼 크기가 상당해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찾는 메뉴인 만큼 맛도 만족스러웠으며, 학식당에 준비된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여 먹으니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탕수육볶음밥

최근 새롭게 추가된 중식 메뉴인 '탕수육볶음밥'도 맛보았습니다. 계란볶음밥과 짜장소스가 곁들여져 나오고, 바삭한 탕수육까지 함께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특히 고슬고슬한 볶음밥의 식감이 인상적이었으며, 바삭한 탕수육과의 조화도 훌륭했습니다. 중식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꼭 먹어보기를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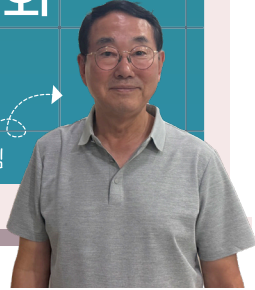
다양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연성대학교 학식당. 앞으로도 새롭게 선보일 메뉴들이 기대됩니다. 아직 학식당을 자주 이용해 보지 못한 학우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방문해 맛있는 학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안양1번가상가변영회 대표를 만나다

안양1번가상가변영회 대표님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화가로 꼽혔던 안양1번가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구도심 상권 전반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안양1번가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보사 편집장은 안양1번가상가변영회 대표를 만나 현재 상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양1번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1990년대 중후반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는 "당시 안양1번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과거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표는 안양1번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권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그는 "구도심 상권은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신도시에 비해 상권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며 "소비자와 점포가 자연스럽게 신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등장 역시 상권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엔터식스와 같은 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거리 상권이 위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양1번가의 공실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는 "공실 문제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건물주와 부동산 시장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안양1번가 역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구도심 상권과 비교하면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는 안양1번가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입점한 상인들은 과거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해 현재 상황을 크게 위기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도심 상권 가운데 안양1번가는 여전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는 "노후화된 도로와 가로등 정비, 공동 방범 시스템 구축, 공영화장실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안양1번가 인근에는 연성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합니다.



안양1번가 거리의 공실

대표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성대학교가 추진하는 라이즈(RISE)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권과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성대학교 역시 안양시 및 지역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혁신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표는 "성수동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한 사례를 참고해 안양1번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인들은 생업으로 인해 연합 활동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안양1번가의 주요 이용층은 학생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상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건강한 상권은 특정 연령대만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5년 넘게 안양에 거주해 온 대표는 마지막으로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양1번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도 연성대 학생들이 찾아오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양1번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도심 상권의 한계와 소비 환경 변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상인과 청년,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면 안양1번가는 다시 한번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안양1번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학보사 국원이 다녀온 일본 어학연수 후기

"3주간의 일본 생활, 나의 첫 스펙이자 성장의 발판"

연성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 하며, 학생들은 해외 현지에서 어학 수업과 문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어학연수는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3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학생은 연성대학교와 자매대학인 산코어학원에서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며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학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특정 언어를 배우고 싶다가보다 해외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경험 자체를 해보고 싶었다"며 지원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오롯이 내 힘으로 생활해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점은 학교에서 정해진 숙소 주변의 뛰어난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숙소 인근에는 여러 편의점이 위치해 있었고 지하철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이 편리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지하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캐리어를 들고 이동할 때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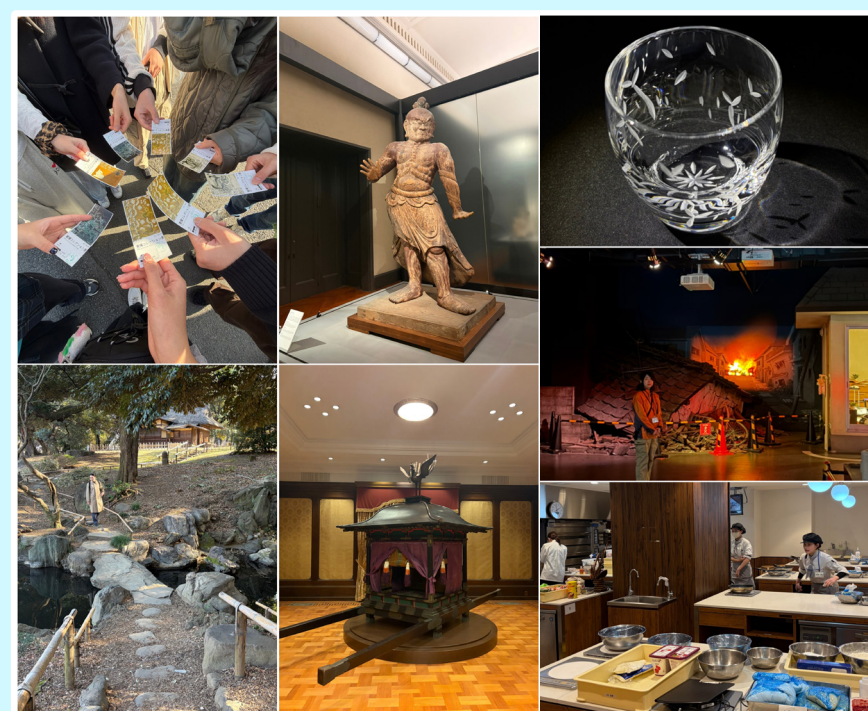
수업은 산코어학원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인 교사들이 매일 번갈아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준을 확인한 후 교재를 활용한 일본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기업 탐방, 문화 체험, 체험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유치원, 요양원, 화장품 공장 등을 방문했으며 우에도 공원, 아사쿠사, 하라주쿠, 박물관, 임해광역방재공원 등을 견학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리공예 체험, 유카타 착용 체험, 스위츠학교 체험 수업에 참여했으며, 향후 연성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올 예정인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업을 담당한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천천히 설명하며 학습을 도왔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참가 학생은 "길거리와 공공시설이 매우 깨끗했고, 특히 화장실 관리 상태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당의 오토시 문화와 인형뽑기 매장에서 직원이 직접 도움을 주는 문화 등 한국과 다른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본어 문법 학습이었습니다. 과거 부정형과 형용사 활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학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진행된 페어웰 파티를 꼽았습니다. 스위츠학교에서 요리 수업을 마친 뒤 진행된 파티에서는 그동안 함께했던 일본인 교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학생은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고, 많은 학생이 눈물을 보일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한 학생은 개인적인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유아교육과인 그 학생은 "해외에서도 스스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일본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교육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 취업까지 염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귀국 후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을 준비하며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며 "학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학연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나의 첫 스펙"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3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보사 국원이 다녀온 필리핀 어학연수 후기

"필리핀에서 보낸 한 달, 영어를 넘어 세상을 배우다"

지난 1월, 연성대학교 국제교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LPU)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학생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총 22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연수는 영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현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라이시움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며 수업에 참여했고, 마닐라 투어를 통해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새로운 교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프리토킹 수업을 통해 회화 능력을 향상시켰고, 오후에는 다양한 영어 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사용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쇼핑을 방문하고 식사를 하며 문화를 공유했고, 호텔에서 수영을 즐기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바닷가 체험을 통해 낚시와 스노클링, 해양 액티비티를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은 영어 학습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질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매우 짧았습니다. 함께 생활한 현지 학생들과 정이 들었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직접 영어 스피치를 준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한 달 동안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 대표로서 마지막 영어 발표를 진행하고 수료식에 참여한 순간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한 달 동안의 노력과 성장이 인정받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해 준 것에 감사했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웅해 준 현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는 단순한 어학 학습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한 달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으며,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서정안 교수님을 만나다

Q1 교수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드셨던 생각이나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저 혼자 노력이라기보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 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2. 이번 표창은 교수님의 오랜 헌신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주변(동료 교수님이나 가족,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동료 교수님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족들도 오랜 시간 교육과 연구 활동을 묵묵히 지켜봐 왔기에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응원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Q3.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시게 된 구체적인 핵심 공적(활동)은 무엇인지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분야에서 건강보험 심사청구 교육, 의무기록정보질 향상 실무,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하는 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점이 주요 공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교과목과 관련한 전공서적 집필, 자격시험 문제 개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교수 및 재직자 대상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진로 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에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현재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 발전에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교육·연구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확대와 직무 전문성 향상, 나아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4. 오랜 시간 관련 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고비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교육 현장에서 배운 학생들이 병원과 공공기관, 보험 분야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교육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Q5. 교수님의 이러한 활발한 대외·연구 활동이 연성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나 시너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외·연구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최신 정책과 현장 동향을 수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외 활동은 연성대학교와



보건의료행정과의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장실습 및 취업처 확대, 전문가 특강 운영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과 학과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수의 성장과 대학의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교육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Q6. 평소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누구나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7. 지금 다시 대학생의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이것만큼은 후회없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학업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여행, 대외활동 등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인생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Q8. 현재 보건복지, 혹은 관련 분야에서 꿈을 키우며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연성대 제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매우 가치 있는 분야입니다. AI와 더불어 변화가 빠른 시대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강점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저 역시 여러분의 성장과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과 보건의료정보관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성대학교의 신설학과, 간호학과 정수진 교수님을 만나다

연성대학교 간호학과에 부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성대학교 간호학과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설레는 기회였습니다.

신설 학과인 만큼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학과의 방향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잘 갖춰진 환경도 좋지만,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학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연성대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간호교육의 가치와도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간호학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설 학과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설 학과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과를 만들어간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방향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소규모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진이 학생 한 명 한 명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학과의 성장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연성대학교 간호학과를 만들어가는 시기이지만, 훗날 학과가 더욱 성장했을 때 학생들이 "우리가 그 시작을 함께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간호사란 어떤 간호사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과연 나는 좋은 간호사였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좋은 간호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간호란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웰빙(well-being)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간호사는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감기에 걸린 환자의 간호는 목표와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질병의 진행 정도 등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갖추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이해하고, 대상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간호사이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며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환자에게도 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간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유도 다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두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늘 행복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고 실습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만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학 생활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과 도전, 그리고 작은 성장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화이팅!



환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하고 따뜻한 미래의 간호사, 이하림 학생



Q.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시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 사회 경험을 쌓고자 식품기업인 '아워홈 (Ourhome)'에 입학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늘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1세 때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련을 계기로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돕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5세의 나이로 연성대학교 간호학과에 도전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신설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A.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데다가 신설 학과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에 연성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새로운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큰 자부심과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기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바른 학과 문화를 다져나갈 수 있어 매 순간이 기대되고 뜻깊습니다.

Q. 우리 대학 간호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교수님들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스토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나 활발하게 소통해 주신다는 점이 연성대학교 간호학과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찰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발달과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주셨으며, 국내 면허를 넘어 영국 간호사 면허 등 글로벌 무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다각도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점이 큰 힘이 됩니다.

Q. 미래에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A. 탄탄한 전공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환자의 고통과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전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장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하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Q. 앞으로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간호학과 학업과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고된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돕는 학문인만큼, 성실하게 몰두하다 보면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커다란 보람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혹은 과정이 힘들더라도 스스로 세운 꿈의 가치를 믿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반드시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성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배은서 국장 *Imagine Dragons-Thunder*

Imagine Dragons의 리더 Dan Reynolds는 'Thunder'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나만의 길을 선택한 순간을 노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Thunder를 들으며 '나도 사회가 정한 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요. 가사가 주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어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김예셀 총무 *헤이즈-And July*

이제 7월이 얼마 안남았기도 하고 여름 밤공기를 마시며 듣기에 좋습니다. 힙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서원 국원 *이아람-미움받을 용기*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했던 고민들이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거 같아서 저는 이노래를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힘들때마다 혹은 생각이 많을때 마다 듣는 것 같습니다.

이하림 국원 *QWER - 내 이름 맞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노래라 자주 듣습니다. 등하교할 때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좋은 곡이라 추천합니다!

신서연 국원 *이승기-smile boy*

평소에 지치고 힘들 때 자주 듣는 노래로 가사가 좋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민서 국원 *Dori-the star*

가사가 따뜻하면서도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으며 특히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시기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내던 때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으며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편안해서 기분이 좋을 때 나 힘들 때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좋은 가사와 추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예진 국원 *임현정-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원래도 들으면 마음이 헛헛해지는 노래들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중 이 곡은 가장 최근에 본 결말이 너무 허무했던 영화에 삽입되었던 곡이었습니다. 어쩌면 대중적이지 않은 취향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작품을 접했을 때 감정이 벅차오른다고보다는 먹먹해지는 느낌을 더 선호해서인지 여기저기서 혹평이 많았던 영화의 결말과 본래도 저명했던 해당 삽입곡 모두 취향에 맞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박서빈 국원 *EXO-Flatline*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가 너무 이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통해 따뜻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어둠의 끝에서 발견한 찬란한 수면 위 너라는 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는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소중한 존재를 발견한 순간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줍니다. 또한 이 노래는 잔잔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마음이 복잡하거나 지칠 때 들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음악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지만, 저에게 EXO의 「Flatline」은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를 넘어 위로와 공감을 주는 특별한 곡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당신은 진정한 연성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연성대학교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의실로 향하느라 바쁘게 지나쳤던 캠퍼스의 모습부터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까지, 이번 페이지에서는 연성대학교 틀린그림 찾기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다니는 학교라고 해서 모두가 연성대학교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한 연성인일까요? 지금부터 틀린그림 찾기과 퀴즈에 도전하며 연성대학교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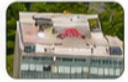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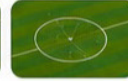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다른 곳 6 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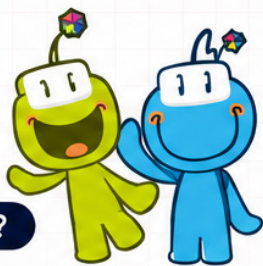
정답 (다른 곳 6군데)



- | | |
|---|---|
| ① 학술정보관 지붕 색상 변경
  | ② 도서관 건물 색상 변경
  |
| ③ 대학본관 옥상 구조물 변경
  | ④ 잔디광장 조형물 변경
  |
| ⑤ 운동장 중앙선/원형 변경
  | ⑥ 정문 건물 지붕 색상 변경
  |

연성대 O X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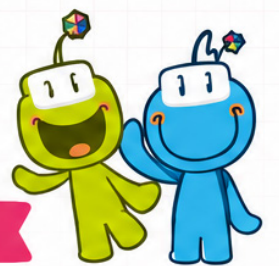
연성대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 |
|------------------------------------|--|
| ① 연성대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 ☐ O ☒ X |
| ② 연성대는 4년제가 없다 | ☐ O ☒ X |
| ③ 연성대의 일반동아리 개수는 총 7개이다 | ☐ O ☒ X |
| ④ 연성대에는 '연성인 장학금이 있다?' | ☐ O ☒ X |
| ⑤ 연성대의 편의점은 CU이다 | ☐ O ☒ X |
| ⑥ 연성대의 총장님의 성함은 김민자 회자이다 | ☐ O ☒ X |
| ⑦ 연성대의 학보사는 총 6개의 학과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 ☐ O ☒ X |

연성대 O X QUIZ!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 | | |
|------------------------------------|---|
| ① 연성대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 ☒ O 정답! |
| ② 연성대는 4년제가 없다 | ☒ X 오답!
최근 신설된 간호학과가 4년제입니다. |
| ③ 연성대의 일반동아리 개수는 총 7개이다 | ☒ O 정답! |
| ④ 연성대에는 '연성인 장학금이 있다?' | ☒ O 정답! |
| ⑤ 연성대의 편의점은 CU이다 | ☒ X 오답!
연성대의 편의점은 e-mart24입니다. |
| ⑥ 연성대의 총장님의 성함은 김민자 회자이다 | ☒ X 오답!
연성대의 총장님 성함은 권민자 회자이다. |
| ⑦ 연성대의 학보사는 총 6개의 학과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 ☒ O 정답!
학보사에는 경영학과, 보건료행정과 등 총 6개의 과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